

공공저작물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요약본)



2013. 11.

목 차

제1장. 조사 설계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4
- 2. 조사 설계 4

제2장. 기초현황조사

- 1. 조사대상 (기관 및 홈페이지) 6
- 2. 공공저작물 보유 현황 7
- 3. 공공저작물의 종류 9
- 4. 공공저작물 카테고리 12
- 5. 기초현황조사 - 저작물 유형 13

제3장. 심층면접조사

- 1. 공공저작물 관리 15
- 2. 저작물 확보 16
- 3. 저작권 판단 애로 16
- 4. 공공저작물 이용 17
- 5. 저작물 관리 시 요구사항 17
- 6. 공공누리 18
- 7. 저작권 권리 처리 지원사업 18

제4장. 수요조사

- 1. 공공저작물 인지도 및 활용경험 20
- 2. 공공저작물 활용 필요성 및 만족도 21
- 3. 공공저작물 이용분야 22
- 4. 많이 이용한 공공저작물의 유형 22
- 5.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만족도 23
- 6. 공공저작물 향후 이용 여부 23
- 7. 공공저작물 향후 수요의 증가 및 감소분야 예상 24

제5장. FGI 조사

제6장. 결론

공공저작물 현황 및 수요조사 요약 보고서

제1장. 조사 설계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콘텐츠의 중요성 및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이나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
- 현재 공공저작물 관련 자료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자료에 머물고 있고 공공저작물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수요자들이 공공저작물의 존재 및 소재 여부 파악이 어려워 활용이 낮음.
- 이에 본 조사는 공공기관 조사를 통해 공공저작물 소재 및 유형 등 공공저작물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저작물 제공하여 수요자의 이용편의 및 활용도 제고에 목적이 있음.

2. 조사 설계

구분	기초현황조사	본 조사	수요조사	심층면접조사	FGI조사
조사 대상	공공기관 홈페이지	저작물 및 홈페이지 관리자	공공저작물 수요자	저작물 및 홈페이지 관리자	공공저작물 수요자
조사 규모	1,313개 공공기관 -정부부처(48개) -정부 산하기관(274개) -기타 공공기관(231개) -지자체(244개) -지자체산하기관(433개)	1,313개 공공기관 -정부부처(48개) -정부 산하기관(274개) -기타 공공기관(231개) -지자체(244개) -지자체산하기관(433개)	총 1,000명 -DB 및 콘텐츠(180명) -앱개발자(220명) -1인 기업(150명) -대학생(300명) -기타(150명)	89개 공공기관 -정부부처(2개) -정부 산하기관(36개) -기타 공공기관(23개) -지자체(11개) -지자체산하기관(12개) - 기타(5개)	총 4개 그룹 - DB 및 콘텐츠(5명) - 앱개발자(6명) - 1인 기업(6명) - 대학생(7명)
조사 방법	데스크리서치를 통한 공공저작물 데이터 수집	온라인 조사 시스템/전화조사 병행	방문을 통한 1:1 개별면접조사 (fax/e-mail 병행)	방문을 통한 1:1 개별인터뷰	FGI 조사 (Focus Group Interview)
표본 추출 방법	전수조사	전수조사	유형/업종별 임의할당	임의추출	유형/업종별 임의할당
조사 기간	6/24~8/14	8/26~10/31	10/1~11/5	10/1~11/8	10/30~11/1

공공저작물 현황 및 수요조사 요약 보고서

제2장. 기초현황조사

1. 조사대상 (기관 및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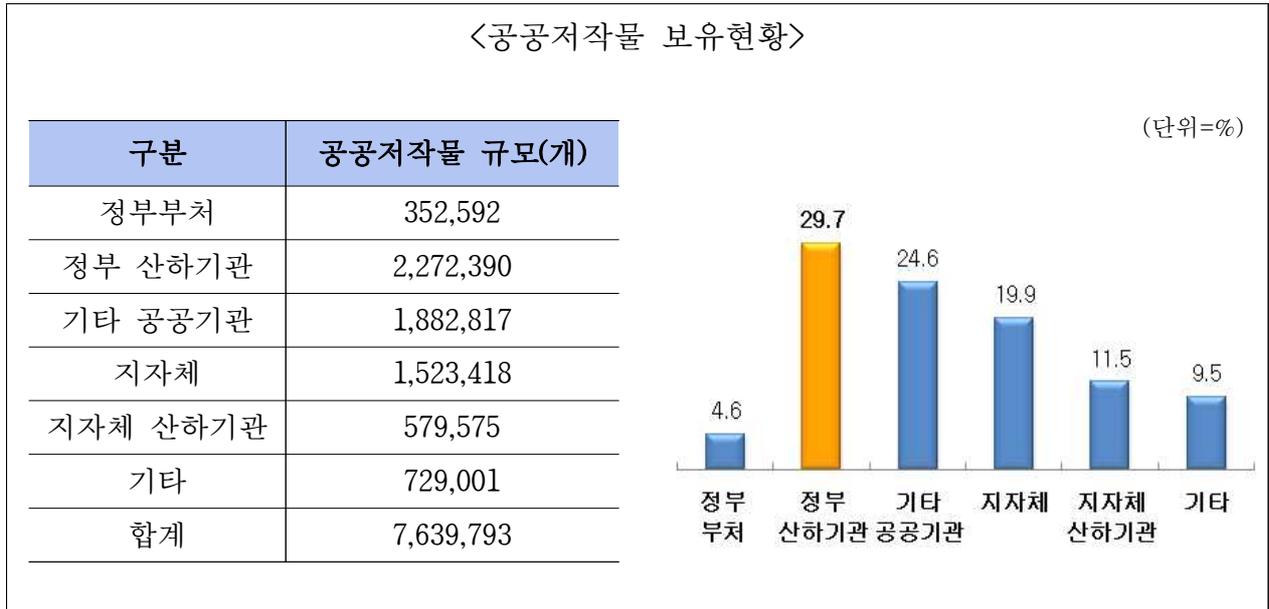
- 모집단 1,313개 공공기관 리스트에서는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비서실 등 실제로 기관은 존재하지만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등 83개의 기관을 제외한 1,230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함.
- 추가적으로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지만, 공공저작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41개의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총 1,271개의 기관 및 각 기관의 패밀리사이트가 조사대상에 포함됨.
- 1,271개의 기관에서 취합한 홈페이지는 총 9,025개이며, 타 기관 운영, 의료기관, 시설관리 등 3,513개의 홈페이지를 제외한 5,512개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기초현황조사를 분석하였음.

리스트 내 조사완료 및 제외 사유			조사대상 포함 기관		사례수
조사완료	1,230	93.7%	리스트 내 (1,230개)	정부부처	48
저작물 없음	27	2.1%		정부 산하기관	274
리스트 중복	7	0.5%		기타 공공기관	231
홈페이지 없음	27	2.1%		지자체	244
추가리스트	22	1.7%		지자체 산하기관	433
합계	1,313	100%	기타(리스트 외)		41
			합계		1,271

조사제외 홈페이지	사례수	비율	구분		조사 홈페이지 수
저작물 없음	2,043	58.2%	정부부처		293
중복	179	5.1%	정부 산하기관		1,014
홈페이지 없음	160	4.6%	기타 공공기관		560
의료기관	249	7.1%	지자체		2,440
해외	210	6.0%	지자체 산하기관		1,137
민원	213	6.1%	기타		68
쇼핑몰	41	1.2%	합계		5,512
민간기관 운영	134	3.8%			
시설관리	130	3.7%			
기타	154	4.4%			
합계	3,513	100%			

2. 공공저작물 보유 현황

- 조사된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에서 저작물은 총 7,639,793개로 조사되었으며, 정부 산하기관 227만여 개(29.7%), 기타 공공기관 188만여 개(24.6%), 지자체 152만여 개(19.9%)순으로 조사되었음.



2-1. 공공저작물 보유 상위 기관

<조직 유형별 공공저작물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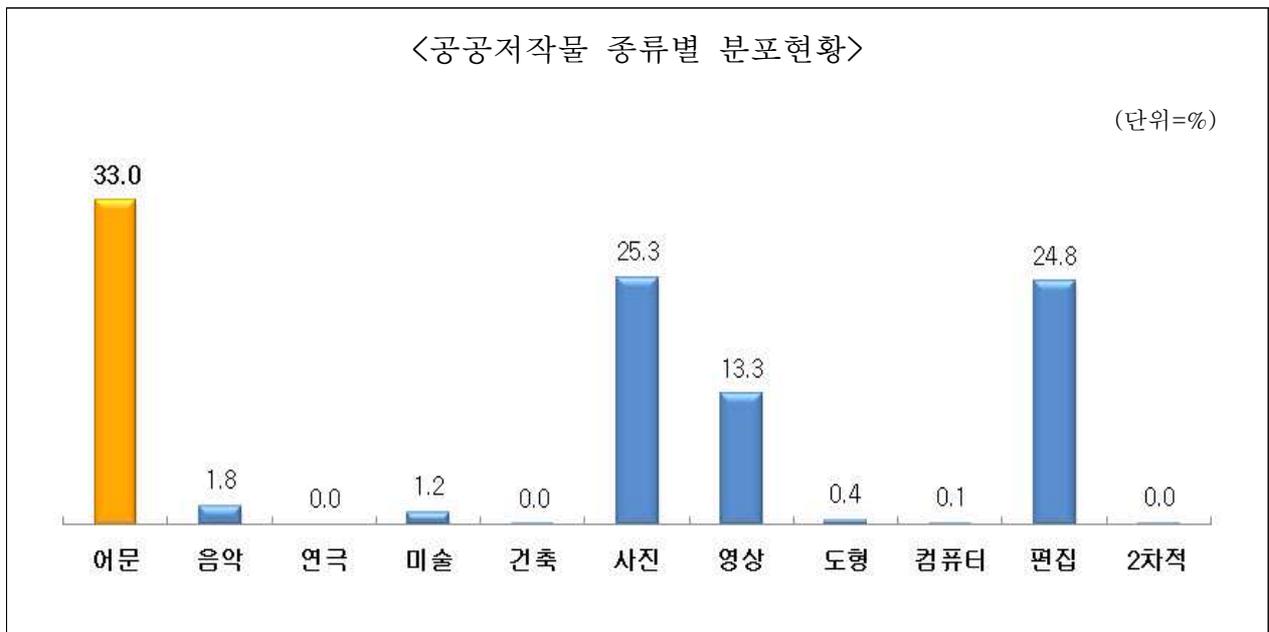
공공저작물 보유 상위 10개 기관 1. 정부부처기관(개)		공공저작물 보유 상위 10개 기관 2. 정부 산하기관(개)	
농촌진흥청	85,16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6,007
환경부	49,103	한국콘텐츠진흥원	219,449
문화체육관광부	24,97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04
의교부	15,750	한국문화정보센터	177,617
조달청	14,344	한국저작권위원회	129,906
국세청	13,5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9,584
관세청	9,592	한국농어촌공사	91,346
기상청	9,35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8,006
보건복지부	8,561	한국과학창의재단	61,320
식품의약품안전처	7,779	한국연구재단	51,490

공공저작물 보유 상위 10개 기관 3. 기타 공공기관(개)		공공저작물 보유 상위 10개 기관 4. 지자체(개)	
한국방송공사	462,399	서울특별시	107,409
한국정책방송원	336,795	전라북도	66,084
국방홍보원	191,452	광주광역시 북구	53,869
한국교육방송공사	182,845	화성시	39,719
국사편찬위원회	171,181	제주특별자치도	35,868
국립중앙박물관	150,180	강원도	31,441
국립식량과학원	24,231	서울특별시 구로구	30,855
국립국악원	22,927	안산시	30,104
국립생물자원관	17,879	서울특별시 강남구	28,069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7,741	경상남도	28,052

공공저작물 보유 상위 10개 기관 5. 지자체 산하기관(개)		공공저작물 보유 상위 10개 기관 6. 기타(개)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지원청	140,520	제주시	652,536
서울특별시교육청	39,815	국립예술자료원	60,291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30,319	한국국학진흥원	5,498
안성교육지원청	29,393	창원시 진해구	1,68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7,668	창원시 의창구	1,668
전라북도 교육청	19,375	창원시 마산회원구	1,469
한라산연구소	16,754	창원시 마산합포구	1,212
광주광역시교육청	15,376	서귀포시	1,128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14,480	(재)국립합창단	852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13,760	전주시 덕진구	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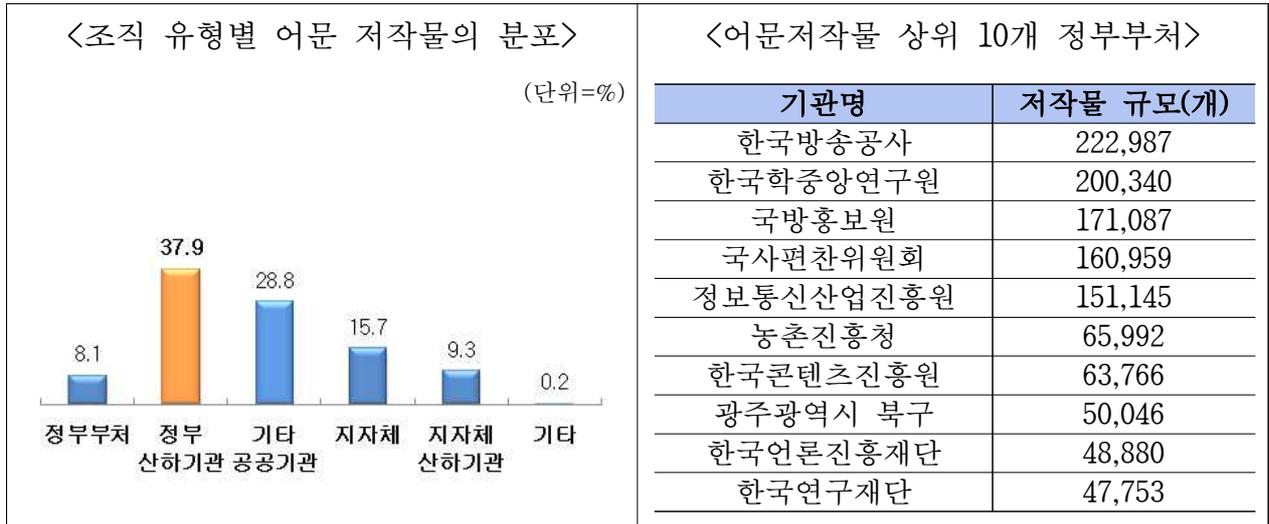
3. 공공저작물의 종류

- 공공기관에서 많은 공공저작물을 창작하고 있지만, 저작물이 제공되는 종류는 어문, 사진 등 유사한 종류의 저작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33.0%), 사진(25.3%), 편집(24.8%), 영상(13.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네 가지 종류의 저작물은 전체 저작물의 96.4%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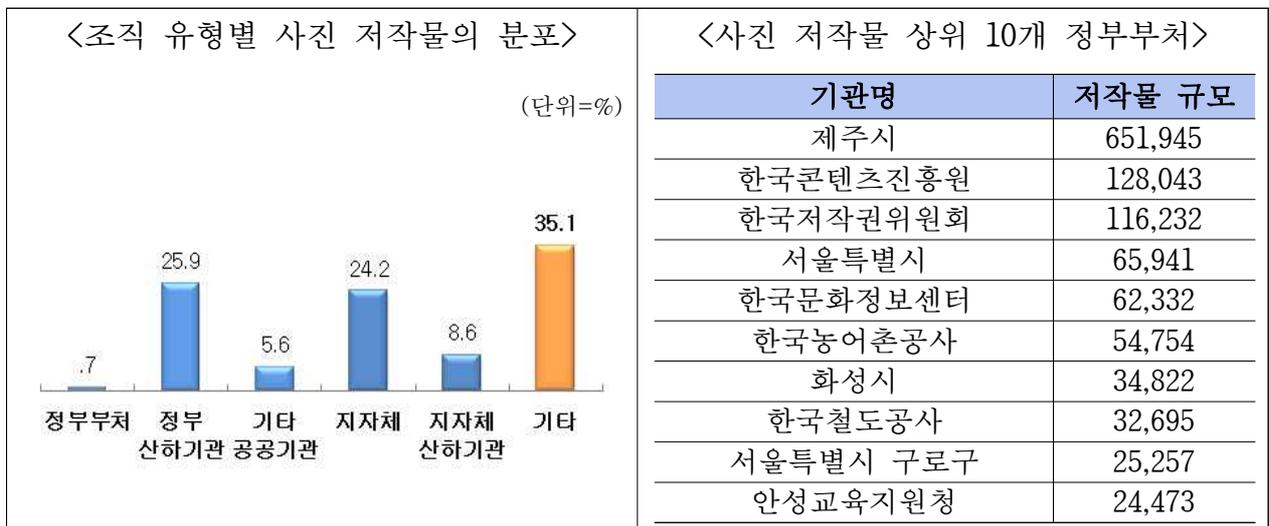
3-1. 공공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어문저작물은 조직의 유형별로 볼 때 정부 산하기관(37.9%), 기타 공공기관(28.8%), 지자체(15.7%)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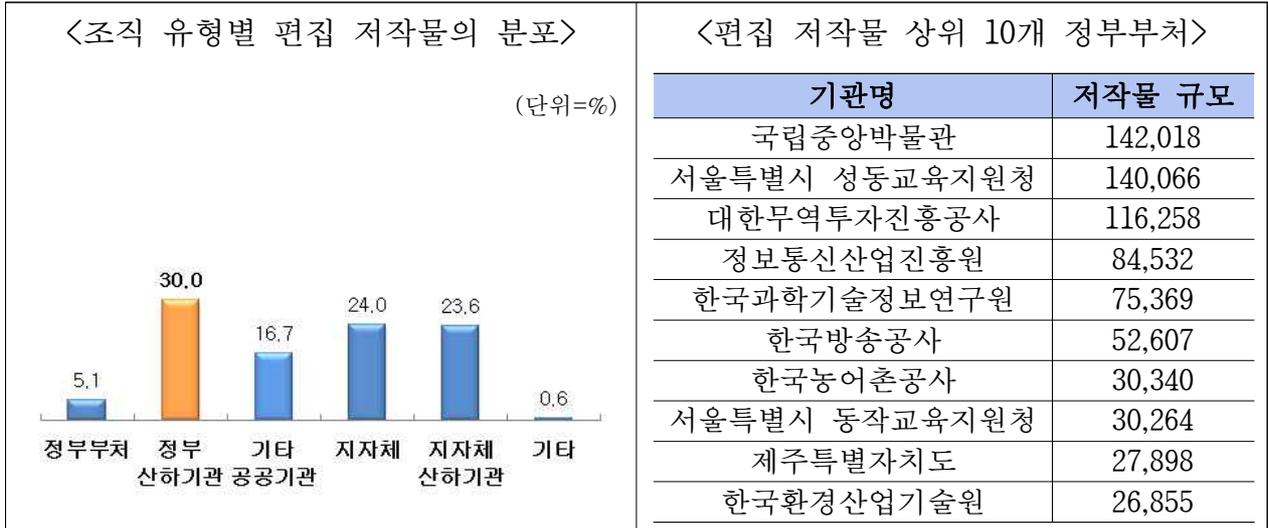
3-2. 공공저작물의 종류 - 사진저작물

□ 사진저작물은 정부 산하기관(37.9%), 기타 공공기관(28.8%), 지자체(15.7%)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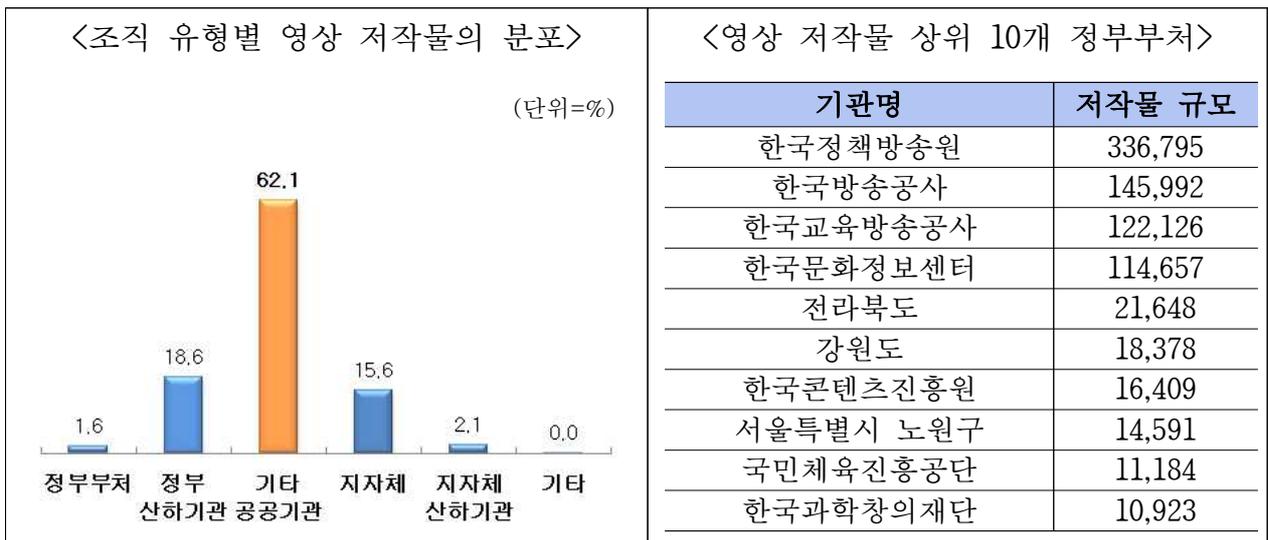
3-3. 공공저작물의 종류 - 편집저작물

□ 편집저작물은 정부 산하기관(30.0%), 지자체(24.0%), 지자체 산하기관(23.6%)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4. 공공저작물의 종류 - 영상저작물

□ 영상저작물은 정부 산하기관(18.6%), 지자체(62.1%), 지자체 산하기관(15.6%)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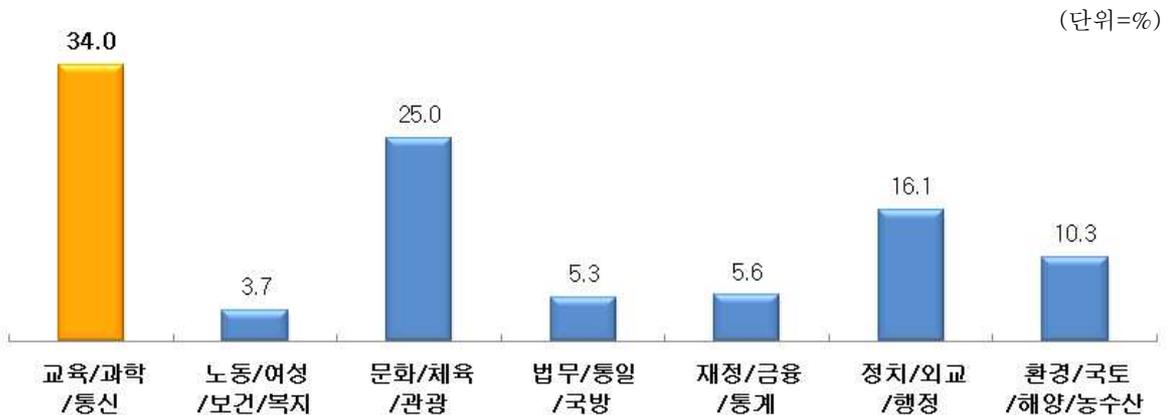


4. 공공저작물 카테고리

□ 각 분야별 저작물의 분야에서는 교육/과학/통신 분야(34.0%), 문화/체육/관광(25.0%), 정치/외교/행정(16.1%)에서 공공저작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대적으로 노동/여성/보건/복지(3.7%), 법무/통일/국방(5.3%), 재정/금융/통계(5.6%)에 해당되는 공공저작물의 규모는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공저작물의 카테고리 현황>

저작물 식별코드	교육/과학/통신	노동/여성/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법무/통일/관광	재정/금융/통계	정치/외교/행정	환경/해양/농수산/해양	합계
정부부처	17,052 4.8%	31,924 9.1%	25,319 7.2%	26,654 7.6%	45,368 12.9%	50,430 14.3%	155,845 44.2%	352,592 100%
정부 산하기관	672,574 29.6%	104,835 4.6%	849,666 37.4%	151,876 6.7%	255,244 11.2%	45,689 2.0%	192,506 8.5%	2,272,390 100%
기타 공공기관	1,043,534 55.4%	25,066 1.3%	413,343 22.0%	223,858 11.9%	38,783 2.1%	24,612 1.3%	113,621 6.0%	1,882,817 100.0%
지방 자치단체	223,020 14.6%	104,197 6.8%	393,755 25.8%	779 0.1%	66,373 4.4%	477,949 31.4%	257,345 16.9%	1,523,418 100%
지자체 산하기관	638,019 72.5%	17,077 1.9%	111,378 12.7%	567 0.1%	22,970 2.6%	25,361 2.9%	64,203 7.3%	879,575 100%
기타	4,838 0.7%	893 0.1%	118,032 16.2%	0 0.0%	505 0.1%	604,350 82.9%	383 0.1%	729,001 100%
총합계	2,599,037	283,992	1,911,493	403,734	429,243	1,228,391	783,903	7,639,793



5. 기초현황조사 - 저작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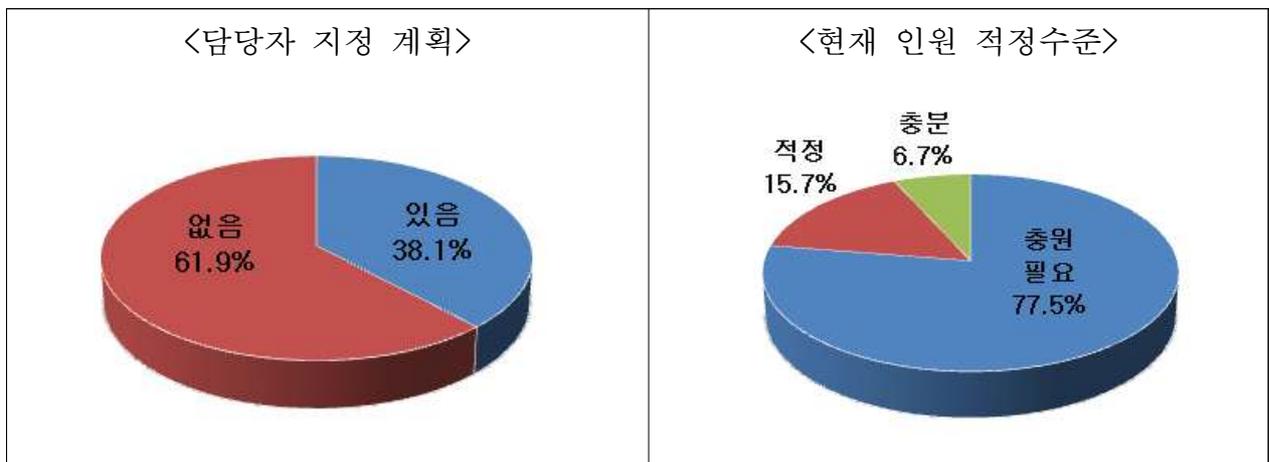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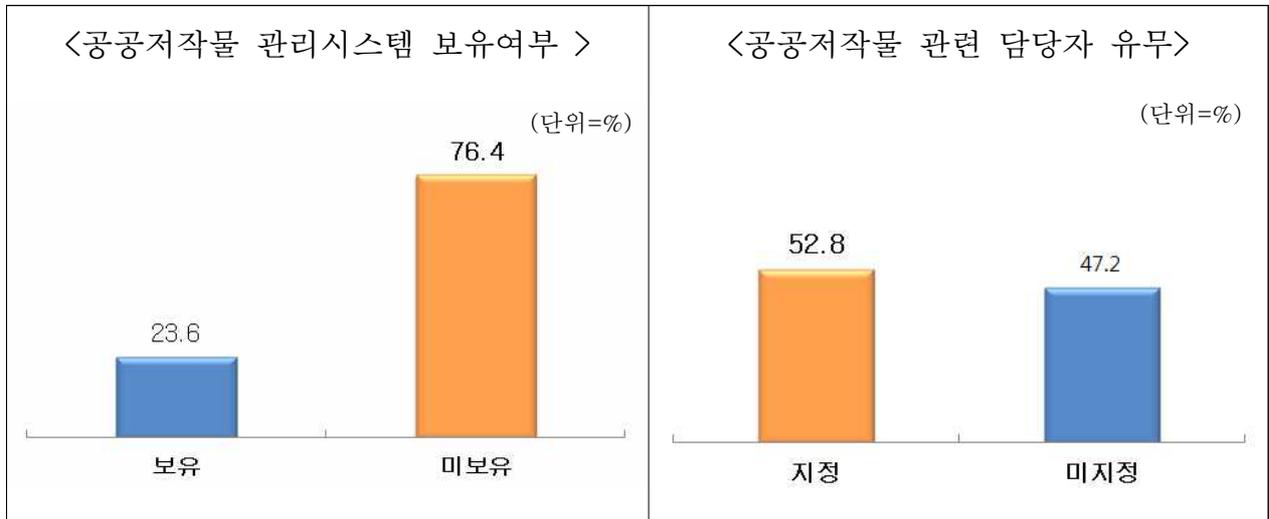
<공공저작물의 유형 현황>

저작물 식별코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소프트웨어	기타	합계
정부부처	288,940	43,039	345	13,770	58	6,440	352,592
	81.9%	12.2%	0.1%	3.9%	0.0%	1.8%	100%
정부 산하기관	1,482,291	567,511	29,068	190,265	107	3,148	2,272,390
	65.2%	25.0%	1.3%	8.4%	0.0%	0.1%	100%
기타 공공기관	876,812	277,254	96,921	631,134	92	604	1,882,817
	46.6%	14.7%	5.1%	33.5%	0.0%	0.0%	100%
지방 자치단체	731,073	602,951	20,395	164,250	2,816	1,933	1,523,418
	48.0%	39.6%	1.3%	10.8%	0.2%	0.1%	100%
지자체 산하기관	630,891	221,801	3,229	23,546	108	-	879,575
	71.7%	25.2%	0.4%	2.7%	0.0%	0.0%	100%
기타	12,147	716,550	2	294	2	6	729,001
	1.7%	98.3%	0.0%	0.0%	0.0%	0.0%	100%
총합계	4,022,154	2,429,106	149,960	1,023,259	3,183	12,131	7,639,793

제3장. 심층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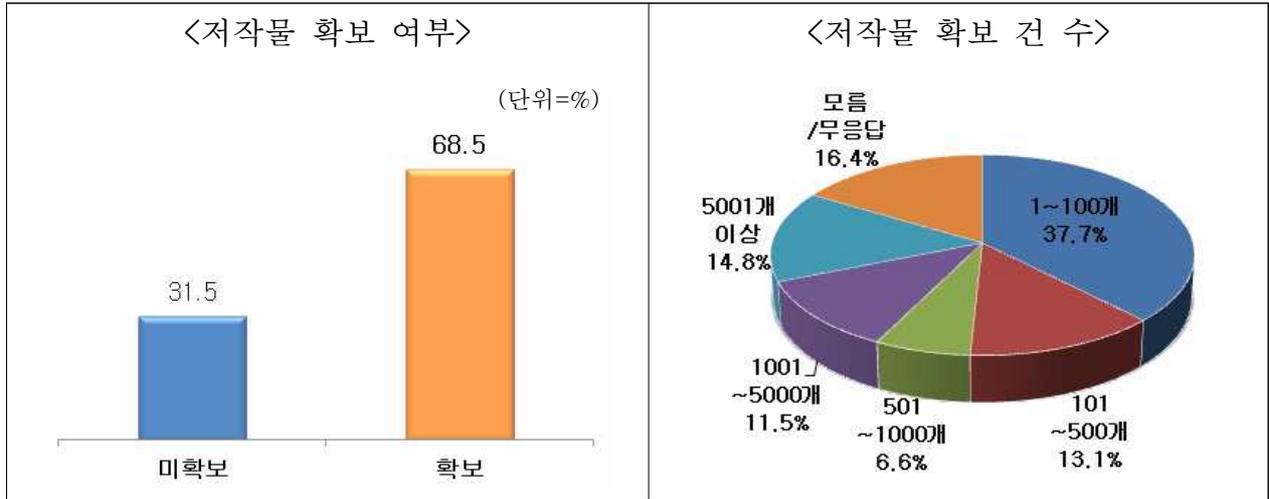
1. 공공저작물 관리

- 공공저작물을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89개 조사 기관 중 23.6%(21개 기관)로 나타났으며, 공공저작물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52.8%(47개 기관)로 나타남.
- 공공저작물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는 기관들의 38.1%(16개 기관)은 금년 또는 내년(50.1%)에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현재의 인력으로는 공공저작물을 관리하는 것에 부담(관리 인력 충원 필요 77.5%)을 느끼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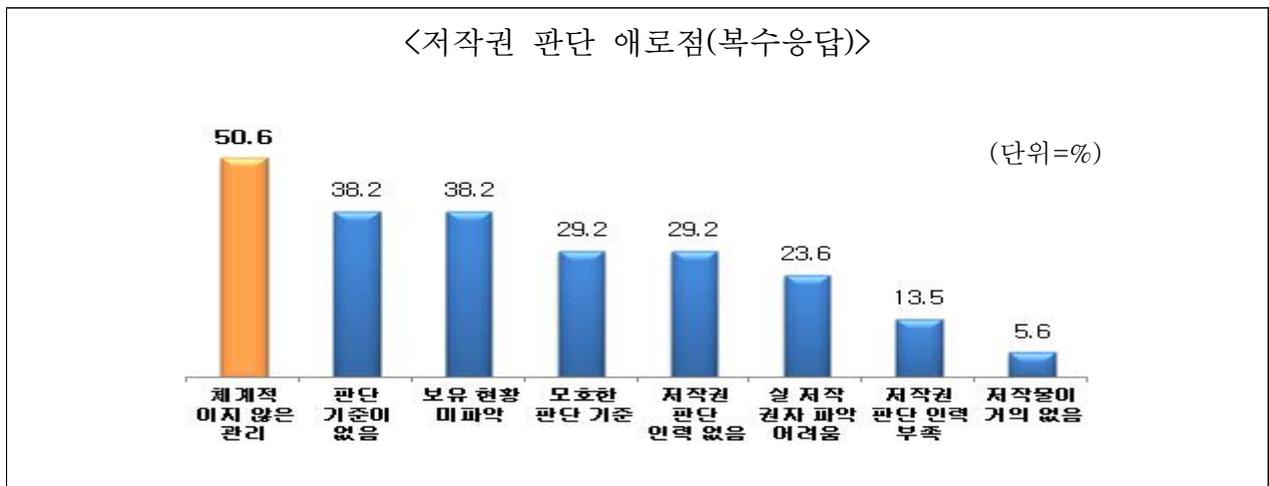
2. 저작물 확보

- 조사 대상 기관들의 68.5%(61개 기관)는 권리가 확실한 저작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작물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관은 16.4%(10개 기관)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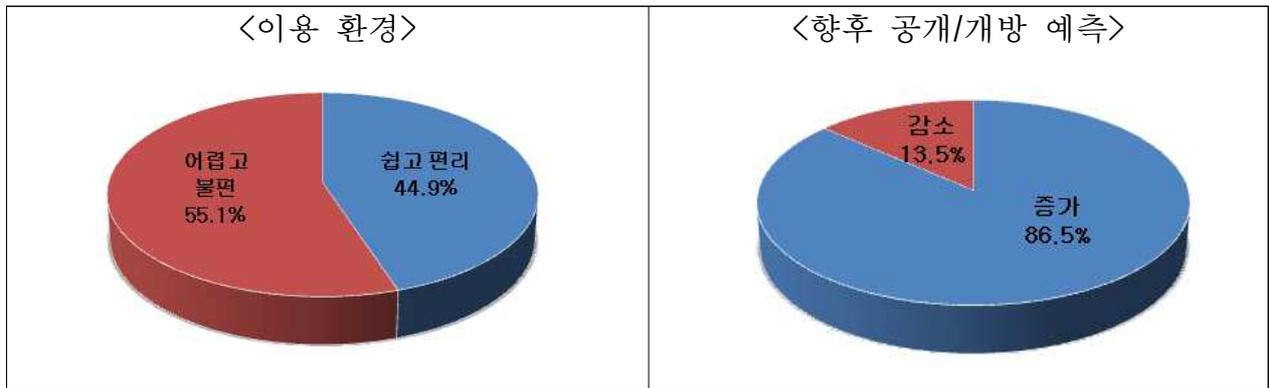
3. 저작권 판단 애로

- 응답 기관들의 76.4%는 저작권에 대한 기준이나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저작권 판단 시 ‘저작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 는 의견이 50.6%로 가장 많았음.



4. 공공저작물 이용

- 일반 이용자들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쉬울 것이라는 의견은 44.9%(40개 기관)로 어렵고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에 비해 약 10%가량 낮게 나타남.
- 향후 공공저작물이 대외적으로 더 많이 공개 또는 개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86.5%(77개 기관)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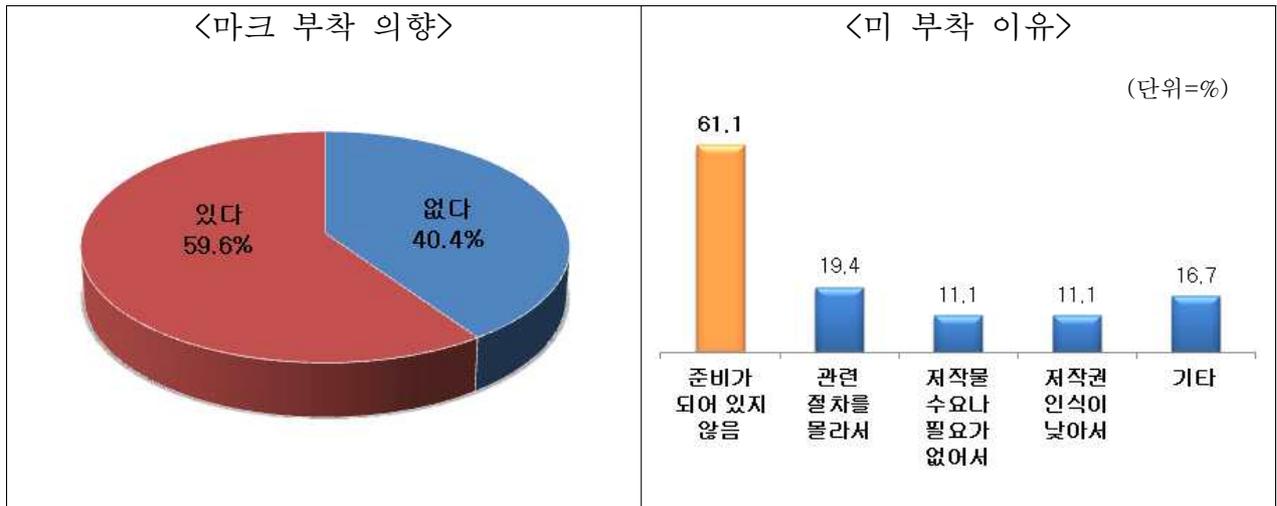
5. 저작물 관리 시 요구사항

- 조사 대상 기관들은 저작물 관리를 위해 저작물 관리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시스템 확립’, ‘저작물 선정 및 관리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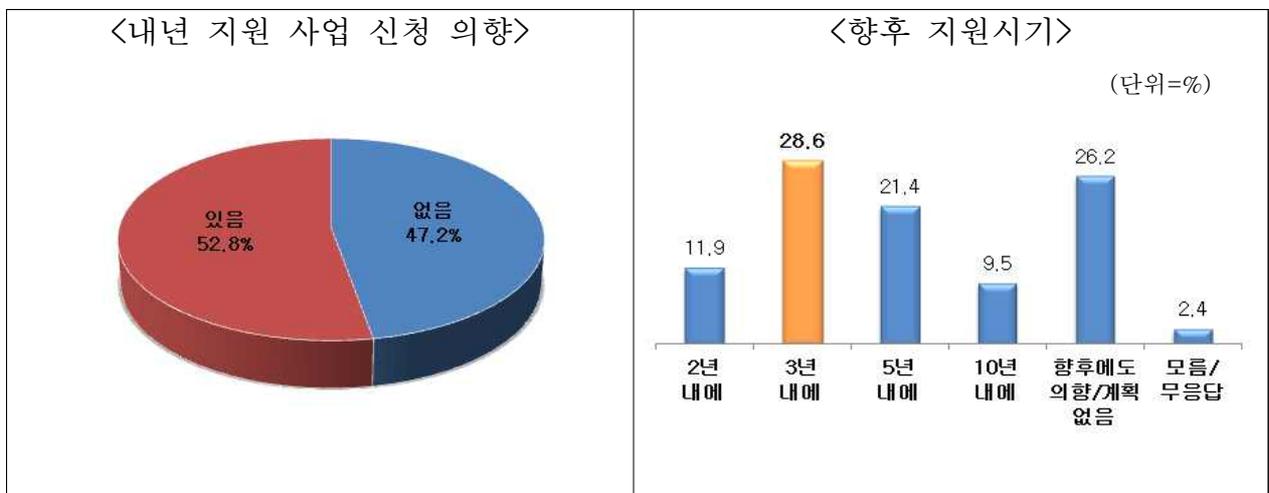
6. 공공누리

- 민간개방을 위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겠다는 의견은 59.6%(53개 기관)로 나타났으나, 타 기관들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및 ‘관련 절차를 몰라서’ 등의 이유로 마크 부착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7. 저작권 권리 처리 지원 사업

-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저작권 권리 처리 지원 사업 의향을 물어본 결과 47.2%(42개 기관)는 내년에 지원 받을 의향이 없는 가운데, 이들의 26.2%(11개 기관)는 지원 사업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제4장. 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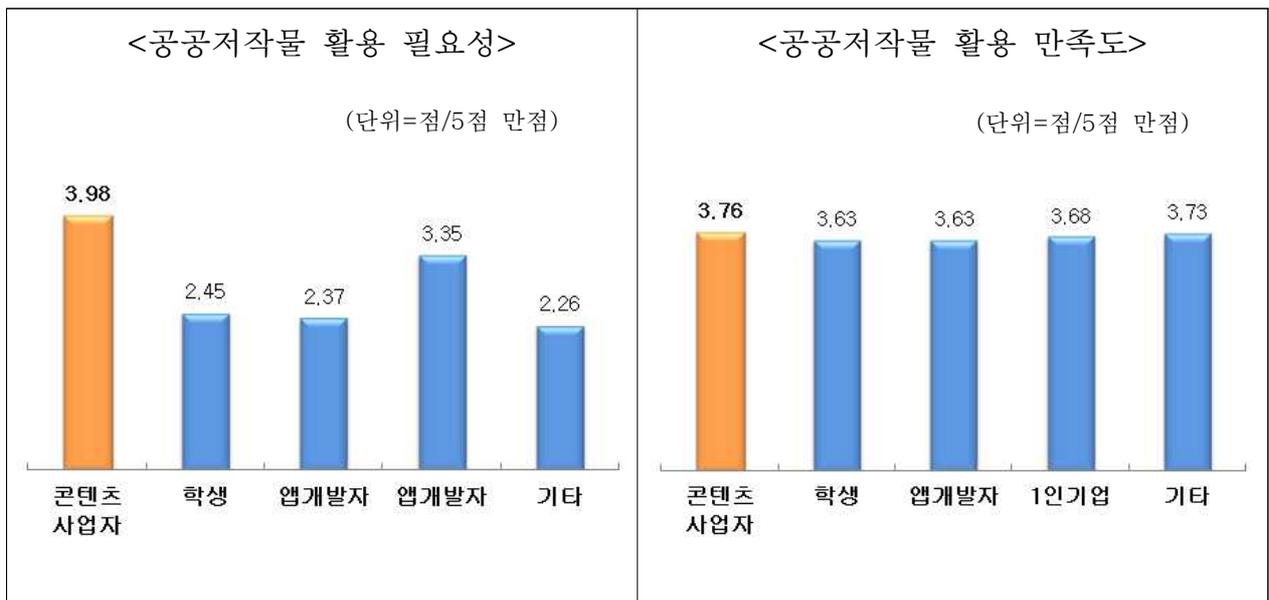
1. 공공저작물 인지도 및 활용경험

- 공공저작물 용어를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574명(57.4%)인 반면,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26명(42.6%)임.
- 공공저작물을 실제 업무 및 학업 수행과정에서 공공저작물의 활용경험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327명(32.7%)인 반면에,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73명(67.3%)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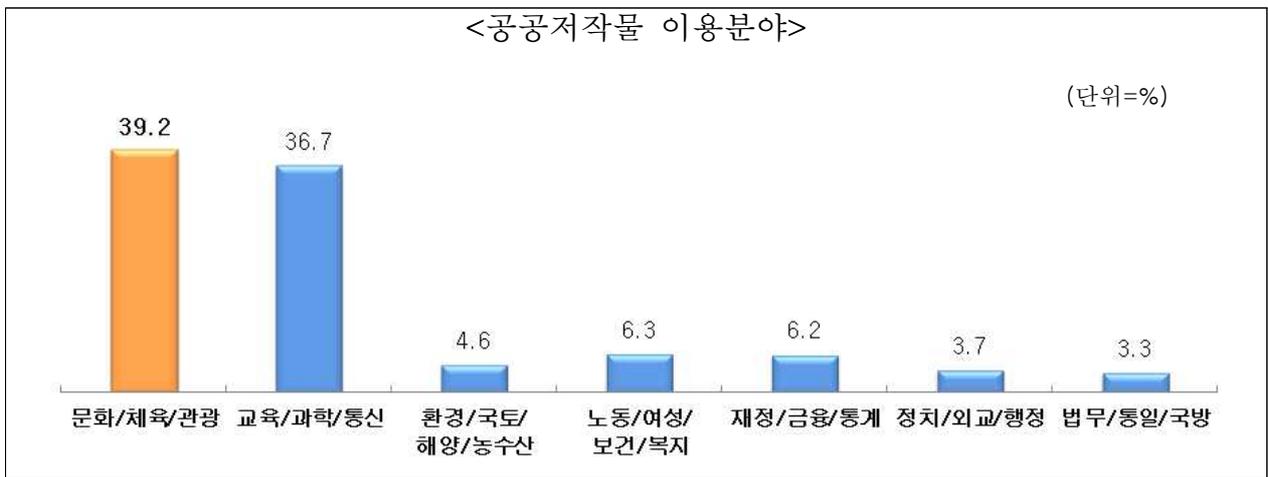
2. 공공저작물 활용 필요성 및 만족도

- 업무 및 학업 수행과정에서 공공저작물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 고 응답한 사람은 577명(57.7%), 반면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한 사람은 101명(10.1%)임.
- 5개 직업군 별로 공공저작물의 활용 필요성을 분석하면, 5점 만점에 1인 기업(3.83점), 기타(3.67점), 학생(3.61점)에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공공저작물을 활용 및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327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콘텐츠 사업자 3.76점, 1인 기업 3.68점, 기타 그룹 3.7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6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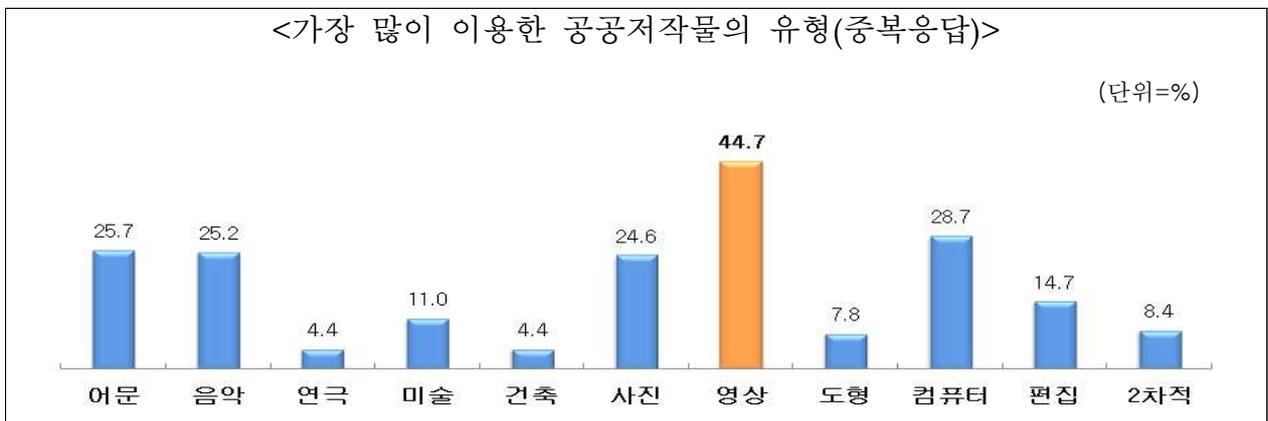
3. 공공저작물 이용분야

- 공공저작물을 많이 이용했거나 향후 이용할 저작물의 분야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39.2%), 교육/과학/통신(36.7%), 노동/여성/보건/복지(6.3%) 순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교육/과학 등 일부 분야에서 이용하는 저작물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환경, 노동, 재정, 법무 등의 분야의 저작물은 낮은 비중을 기록함으로써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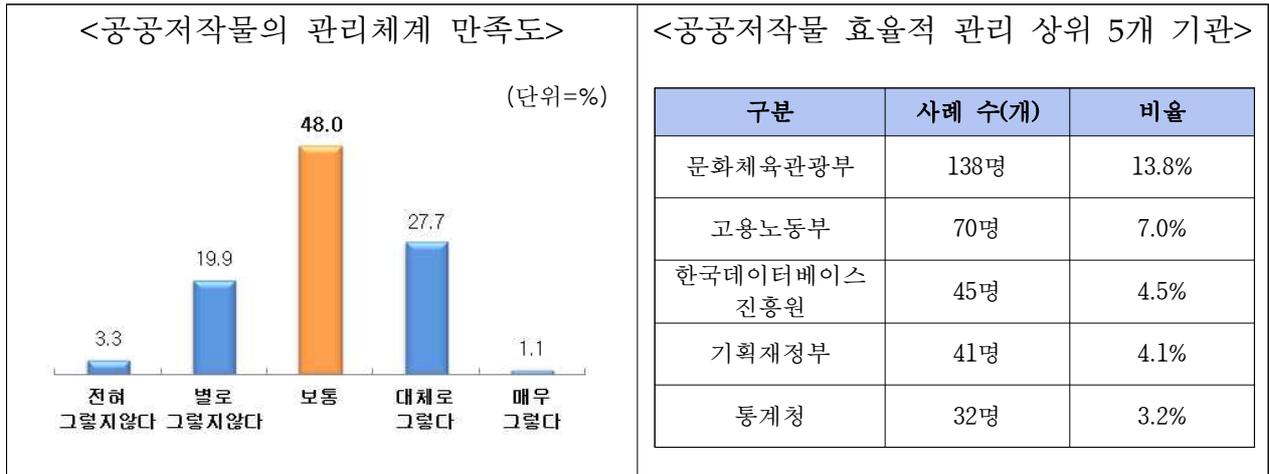
4. 많이 이용한 공공저작물의 유형

-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저작물의 유형은 영상(44.7%), 컴퓨터(28.7%), 어문(25.7%), 음악(25.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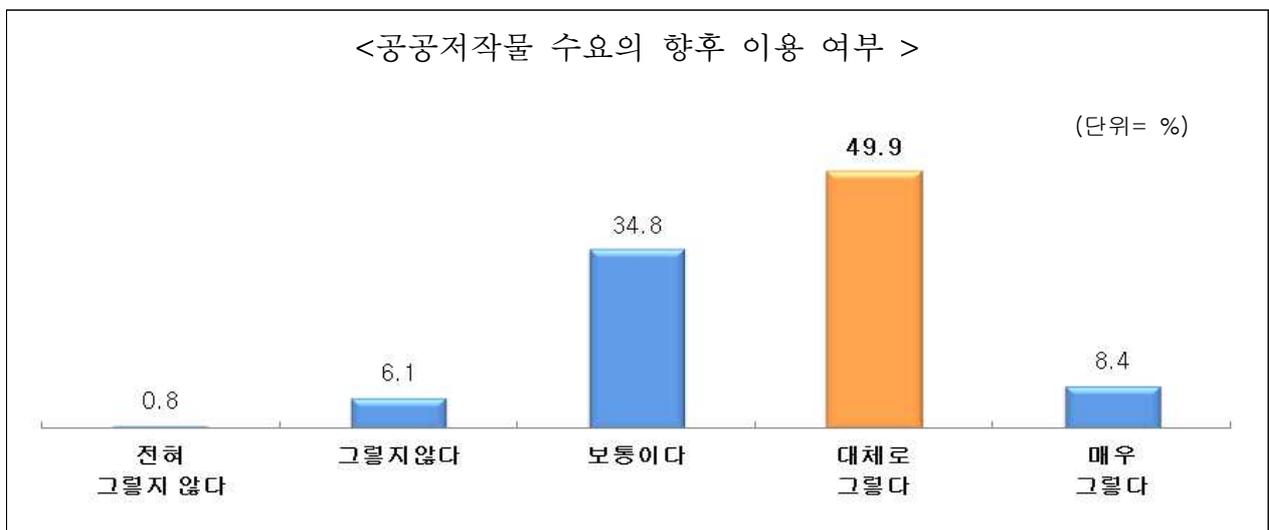
5.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만족도

□ 공공저작물의 관리체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28.8% (대체로 그렇다 27.7%+매우 그렇다 1.1%)로 나타남.



6. 공공저작물 향후 이용 여부

□ 공공저작물을 향후 업무 및 학업수행에 필요할 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와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58.3%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 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6.9%로 조사되었음.



7. 공공저작물 향후 수요의 증가 및 감소분야 예상

- 공공저작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에 691명, “교육/과학/통신” 분야에 629명, “노동/여성/보건/복지” 분야에서는 234명 순으로 조사되었음.
- 반면 “정치/외교/행정” 분야는 493명, “법무/통일/국방” 분야에서는 477명, “재정/금융/통계” 분야 309명으로, 공공저작물의 수요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공저작물의 수요 증가 예상분야> (1+2순위, 중복응답)			<공공저작물의 수요 감소 예상분야> (1+2순위, 중복응답)		
분야	사례 수(개)	비율	분야	사례 수(개)	비율
문화/체육/관광	691	69.1%	문화/체육/관광	76	7.6%
교육/과학/통신	629	62.9%	교육/과학/통신	87	8.7%
환경/국토/해양/농수산	155	15.5%	환경/국토/해양/농수산	221	22.1%
노동/여성/보건/복지	234	23.4%	노동/여성/보건/복지	265	26.5%
재정/금융/통계	177	17.7%	재정/금융/통계	309	30.9%
법무/통일/국방	53	5.3%	법무/통일/국방	477	47.7%
정치/외교/행정	47	4.7%	정치/외교/행정	493	49.3%
기타/없음/무응답	2	0.2%	기타/없음/무응답	18	1.8%

공공저작물 현황 및 수요조사 요약 보고서

제5장. FGI 조사

1. 공공저작물의 인지도

- 전반적으로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공공저작물 범위, 종류 등에 대해 막연하게 인식함
- 특히 저작물이라는 범위가 너무 커서 정확한 개념이 와 닿지 않다는 의견이 많음
- 조사대상별로 의견 나뉨. 양적 수준은 비교적 양호. 질적 수준은 다소 보완 필요(최신 업데이트 필요)
- 인지도가 있더라도 공공저작물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였음
- 저작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남용 방지 등을 위해서라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2. 공공저작물의 이용현황

- 조사대상별로 분야와 이용기관 다양하였음(문화, 관광, 통계, IT 등)
- 그룹 별 이용기관은 각기 달랐으나 주로 각자의 업무와 연결된 기관 내에서 활용하고 있었음(통계청, 국회, 기상청, 교육청, 영상진흥원 등)
- 따라서 공공저작물 특성상 특정업무와 연관여부가 이용여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됨.
- 형식은 대개 텍스트 형태를 주로 이용함
- 업무나 과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료가 공신력이 있고, 자료 출처의 정확성 등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대다수였음.
- 공공저작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 형성
- 담당자와 컨택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접근성 개선 및 담당자의 전문성에 관한 지적이 언급

- 이용에 따른 유료화는 공공성과 유료화를 연결시키기가 어려우며 세
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많았음
- 질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위해서라면 유료화를 통한 이용 가능성
을 제고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음

3. 공공저작물의 관리체계

- 공공저작물의 전문 담당자 양성 필요 및 검색 시스템 보완
- 공공누리의 인지도는 매우 낮고, CCL은 비교적 인지도가 있음
-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부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별로 찬반의견 나
누어짐
- 신뢰성 및 자료 남용 방지차원에서는 긍정적 평가, 반면 자유로운 사
용권 침해 및 낮은 홍보는 부정적 평가로 지적함
- 대학생 그룹은 찬성 의견이 더 많은 반면, DB/콘텐츠 그룹은 찬반이
양분되었음
- 찬성이유로는 자료출처의 신뢰성, 자료남용 방지, 자료공유 안정성
등을 언급되었고 반대는 홍보가 안 되므로 인지도가 낮고,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침해된다는 의견
- 공공저작물의 홍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산
콜센터 같은 안내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한 공공저작물의
활성화 필요

4. 공공저작물의 향후 수요

- 정보이용 환경 증가로 공공저작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수요는 증가할 것이나, 개인적 수요에 대해서는 그룹별 의견이 나뉨(수용 층에 대한 면밀한 재검이 요구됨)
-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특히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 등의 의견이 있었음

5. 공공저작물 이용/관리 관련 개선사항

-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과 DB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제6장. 결 론

1. 본 조사의 시사점

- 동영상 콘텐츠 증가, 수요 확대 예상
: IT 기술 발전,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 확대의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이에 대한 공공적 자료 확대 필요
- 현재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필요
: 공공저작물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기관 홈페이지 재구성 조치가 필요.
현재의 홈페이지는 자료검색, 자료 확인, 자료입수(다운로드 등) 등의 절차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저작물 이용자가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함
- 공공저작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 등을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
- 공공저작물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 새로운 지식에 대한 확대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저작물의 양적 규모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공공저작물 활용 환경 마련 가능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파악
: 공공저작물 저작권이 일반인에게 인식되는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저작물 저작권 부여의 방향성을 확인

2. 조사 결과의 후속방안

- 저작권 권리 처리 지원 사업 확대
: 저작권 권리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의향이 52.8%로 높아(공공기관 심층조사(N=89)),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저작물의 양적 확충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도모 가능
- 공공누리마크 부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공공누리마크 부착의향이 59.6%로 높아, 공공누리마크에 대한 기관 수요가 높음. 공공누리마크 부착을 위한 가이드제공, 관련 교육진행, 절차설명 등을 통해 공공누리마크 부착율 제고 가능
- 공공저작물 담당 전문 인력 양성 제도 마련
: 기관 내 공공저작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 교육 기회 확대 및 저작물 관리 방안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공공저작물 관리의 전문성 확보 가능
- 공공저작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 제시
: 공공저작물 체계적 관리(28.8%,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 공공저작물 유형, 종류, 분류 기준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관리시스템 우수 기관 벤처마킹 등 시스템 기준 가이드 제공 필요

3. 조사의 한계점

- 조사대상 기관 수 확대
: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므로, 공공기관 저작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 공공기관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조사기간의 충분한 확보
: 조사 설계, 입력투입, 실사 진행 등 조사전반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의 다양화 필요
: 공공저작물 수요예측을 위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사 설계 필요
- 오프라인 저작물 포함 고려
: 금년 조사에서는 온라인(홈페이지)에 게재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실태조사 설계도 고려 필요
- 조사에 대한 홍보
: 향후 공공저작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사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활용성 고려

4. 결론

- 공공저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관리체계 개선, 시스템 보완으로 이용자 접근성을 높여 증가하는 공공저작물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